

금융의 프랑스 혁명?

- 게임스탑 사태와 투자자 포퓰리즘의 등장 -

이승철*

The French Revolution of Finance?

- GameStop saga and the rise of investor populism -

Seung Cheol Lee*

최초투고일: 2022.03.10. 논문심사일: 2022.03.30. 게재확정일: 2021.04.05.

요약 2021년 1월 발생한 게임스탑 사태는 종종 “금융의 프랑스 혁명”,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정신의 귀환”으로 말해지곤 한다. 이 글은 이 사태의 의미를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성’과 ‘투자자 포퓰리즘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글은 먼저 게임스탑 사태의 경과를 살펴본 후, 이 일련의 사태의 핵심에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작동하는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가치화 구조가 있음을 밝힌다. 게임스탑 사태는 과거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활용되던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성을 집합적 대중투자자들이 간파하고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어서 이 글은 게임스탑 사태에서 발견되는 대중투자자들의 구체적 문화 실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중의 동원에 기반한 운동이 ‘포퓰리즘’의 양식을 차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구조가 이러한 투자자 포퓰리즘의 객관적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구조와 포퓰리즘적 문화실천 간의 내적인 연결관계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며, 게임스탑 사태는 연결된 대중이 금융시장의 포퓰리즘적 주제로 등장한 상징적 사건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주제어: 게임스탑, 월스트리트베츠, 자기참조성, 레버리지, 투자자 포퓰리즘

Abstract The GameStop saga is often dubbed “The French Revolution of Finance” or “The Return of the Occupy Wallstreet Spirit.”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incident, with a focus on two concepts: the ‘self-referentiality’ of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rise of ‘investor populism.’ I first explore how the GameStop saga unfolded and show how at the core of the conflict lay the self-referential nature of short selling that works like a self-fulfilling prophecy. The GameStop incident can be considered a rare case in which mass investors penetrated and appropriated the self-referentiality of the financial market that had been exclusively exploited by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과제번호: 200-20200131). 논문의 초고는 한국문화연구학회 2021년 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당시 토론을 맡아주신 지주형 선생님과 논문 심사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clee@snu.ac.k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high financiers in the past. Next, I investigate the concrete cultural practices of the members of r/wallstreetbets and demonstrate how the mass investors have adopted ‘populist styles’ when mobilizing and leveraging the performative effect of their investments. The self-referentiality of the financial market serves as a key condition for the emergence of investor populism. This study thus illuminates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ization and populism, and maintains that the GameStop saga was a symptomatic event during which highly-connected mass investors have emerged as populist subjects in the financial market.

Keywords: GameStop, r/wallstreetbets, self-referentiality, leverage, investor populism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주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투자자들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곤 한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기관투자자들이 주가를 이해하는 더욱 세련된 모델,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대다수 기관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 주식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는 크고 작은 투자자들이 공유한 직감과 투자자 스스로 만들어낸 이러한 통념을 강화하는 뉴스미디어에 기반한 하나의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통해 결정된다.(Shiller, 2001, xv)

1. 들어가며

2021년 1월 마지막 주, 전 세계 인터넷과 SNS 공간은 인터넷 커뮤니티 레드(Reddit)의 게시판 r/wallstreetbets(이하 WSB)에서 퍼져나온 기묘한 열기에 휩싸였다.¹⁾ 급상승한 게임스

1) 레드잇은 영어권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각종 하위 게시판(subreddits)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1월 만들어진 WSB는 주식, 옵션, 외환 등 금융투자에 관해 토론하는 게시판으로, 게임스탑 사태 이전에는 회원수 170만명 가량을 보유한 중형 규모의 게시판이었지만(2020년 12월 31일 확인), 게임스탑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후 멤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2021년 5월 31일에는 1,05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탑(GameStop) 회사의 주가 그래프를 두고, 트위터 유저들이 “우리는 금융의 프랑스 혁명을 목격하고 있다!”고 외치고, 페이스북에서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 클립과 외젠 들라크루아의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반복해서 공유되는 동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는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정신이 돌아왔다”는 즐거움과 흥분, 놀라움이 뒤섞인 비명이 터져나왔다.²⁾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이 사건은 미국의 오프라인 비디오게임 판매 업체 게임스탑의 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후, 한동안 등락을 반복하며 요동친 것으로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이러한 단기변동 사태에 열광했던 것일까? 무슨 이유로 이 사건은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정신의 재림”으로 묘사된 것일까? 우리가 목격한 것은 과연 “금융의 프랑스 혁명”이었을까?

이 글은 ‘게임스탑 사태’라 부를 만한 이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성(self-referentiality)’과 ‘투자자 포퓰리즘(investor populism)’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검토함으로써, 위에 제기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먼저 게임스탑 주가를 둘러싼 공매도 세력과 WSB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추적하면서, 이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그리고 왜 전 세계 대중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일련의 사태의 핵심에 제시(題詞)로 인용된 행동경제학자 로버트 실러의 말처럼 일정 정도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작동하는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가치화 구조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게임스탑 사태는 과거 전문가와 투자 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활용되던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성이 집합적 대중투자자들에 의해 간파되고 활용된 드문 사례로 주목할 가치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어서 게임스탑 사태 와중에 전개된 WSB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대중투자자운동의 등장을 ‘투자자 포퓰리즘’이라 명명하고,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구조가 이러한 포퓰리즘적 실천형태들의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금융화와 포퓰리즘 간의 외적인 연관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금융시장의 구조와 오늘날 전세계 금융시장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는 포퓰리즘적 문화실천 간의 내적인 연결관계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2) Occupy Wall Street spirit returns as traders upset the elites. *Financial Times* [On-line] 2021.1.28, Available: <https://www.ft.com/content/bcfb2252-f752-4177-a860-07dc66b0b9e8>

2. 금융투자와 SNS의 만남: 게임스탑 사태의 전개

게임스탑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의 출발점은 2021년 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비디오게임 판매 업체 게임스탑은 한 때 미 전역에 7000여개의 매장을 가졌던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지만, 비디오게임의 사양산업화와 2020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1년 1월 11일 게임스탑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반려동물 용품 온라인 판매업체인 츠이(Chewy)의 창업자 라이언 코헨(Ryan Cohen)을 이사회로 영입하고, 게임스탑의 주요 사업 방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e-커머스 계획’을 발표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새로운 계획을 적극 환영한 이들 중에는 ‘Roaring Kitty’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WSB 게시판에서도 ‘DeepFucking Value’라는 아이디어로 활동하던 키스 질(Keith Gill)도 포함되어 있었다. 키스 질은 2019년 7월부터 당시 \$5 정도에 불과하던 게임스탑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며 이 주식의 구매를 독려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WSB에도 정기적으로 포스팅하는 ‘꾸준글러’로 알려져 있었는데, 라이언 코헨 영입 소식과 함께 게임스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WSB 멤버들 사이에서 게임스탑 주식을 구매하는 분위기가 하나의 놀이처럼 조성되었다.³⁾ 키스 질과 WSB 멤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코헨의 사업능력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온라인 사업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스탑의 주가는 이후 빠르게 올라 2021년 1월 15일에는 \$40선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WSB에서 종종 일어나던 투자 놀이에 가깝던 일련의 사태는, 2021년 1월 19일 공매도 투자기관 시트론 리서치가 게임스탑의 온라인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고, 1월 22일 대형 헷지펀드 멜빈 캐피털이 게임스탑 주식 5000만주를 공매도한 사실이 WSB에 알려지면서 크게 요동치게 된다. 공매도(short selling)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일단 해당 주식을 빌려와 시장에 판매하고, 이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빌려온 주식을 갚는 투자 형태를 말한다. 이 때 빌려와 판매한 주식의 가격과 이후 하락한 가격에 구매한 주식 가격의 차액

3) 여기에는 비디오게임 판매업체인 게임스탑이 WSB 게시판의 주된 구성원인 미국 밀레니얼 세대 남성들에게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회사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분석도 있다. ‘Revenge Tactic’: GameStop’s massive stock surge isn’t only about making money. *Time* [On-line], 2021.1.28, Available: <https://time.com/5933931/gamestop-stock-market-reddit-m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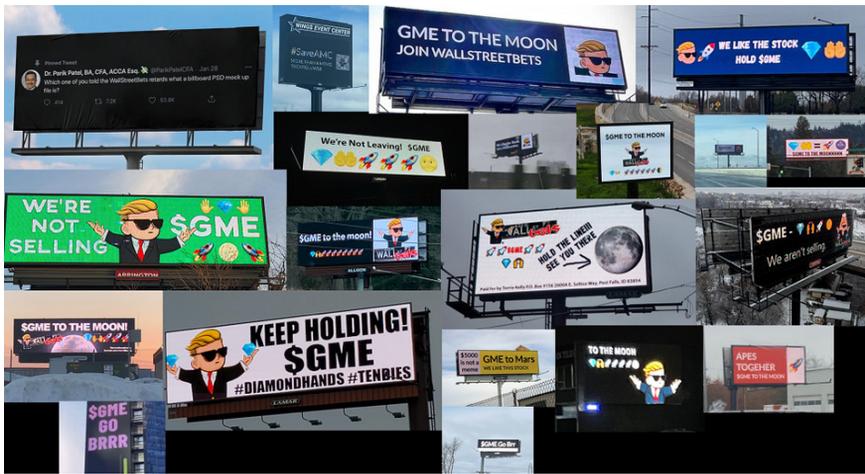
이 공매도 투자자들의 이익이 된다. 사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주식 시장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이러한 공매도 행위가 뒤에 논할 주식시장의 자기참조적 가치화 구조를 통해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다(cf. Merton, 1948). 즉, 한편으로 공매도 투자자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과대평가되어있다고 생각하고 가격의 하락을 예견해 투자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공매도를 통해 다량의 주식이 일시에 판매됨으로써 그 효과로 인해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도 한다. 실제 이 둘 중에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형 헷지펀드로 구성된 공매도 세력의 활동은 대중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분의 대상이 되어 왔다(이관휘, 2019).⁴⁾ 특히 게임스탑의 경우, 멜빈 캐피털을 포함한 여러 헷지펀드들의 공매도 주식량이 게임스탑 전체 주식량의 140%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추가로 알려지면서,⁵⁾ 분개한 WSB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현재 소유한 게임스탑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추가구매하자는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WSB 멤버들의 전략은 간단했다. 본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거나 공격적인 추가 구매에 나서면, 공매도를 위해 빌려온 주식을 특정일까지 되갚아야 하는 헷지펀드 세력은 필요한 주식을 시장에서 구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주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숏 스퀴즈(short squeeze)’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와 대응전략이 WSB를 중심으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많은 대중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 구매에 동참하였고 실제 게임스탑 주가는 1월 22일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과 SNS에 게임스탑 구매 증명 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간 한편, 세계 곳곳에서 “게임스탑 주식을 사고 유지하자(Buy and Hold GME)”, “게임스탑 급등(GME to the Moon)”과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응원 사진들이 WSB에 업로드 되었고, 심지어 게임스탑 주식 구매를 독려하는 옥외 광고판마저

-
- 4) 엘론 머스크가 게임스탑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1월 29일 공매도 세력을 비난하며 올린 트윗은 일반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관점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너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집을 팔 수는 없지. 너가 가지지 않은 차도 팔 수 없고. 그런데 왜 너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은 팔 수 있는 거지? 이걸 말도 안돼(this is BS). 오랜 관행 때문에 합법으로 간주될 뿐이지, 사실 공매도는 사기야”(@elonmusk, Available: <https://twitter.com/elonmusk/status/1354890601649610753>). 이 트윗은 트위터 상에서 14만회 리트윗되고, 70만이 넘는 좋아요를 받았을 뿐 아니라, WSB에서 오랜 시간 게시판 맨 위에 고정되는 탑포스트가 되었다.
- 5) 대출한 주식을 갚아야 하는 시점에 따라 복수의 대출의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리적으로는 공매도 주식량이 현재 주식량의 몇 배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게임스탑처럼 많은 양의 공매도가 일시에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이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 등장하였다(<그림 1> 참고). 이러한 흐름은 1월 26일 일론 머스크가 “gamestonk!”(stonk는 WSB를 비롯한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떡상”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절정에 달해, WSB 멤버들에 의해 1차 공매도 주식의 상환일로 예상되었던 1월 28일 장중에는 주가가 \$483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1> 게임스탑 구매 독려 옥외 광고판들



출처: r/wallstreetbets

이러한 상황은 1월 28일 주식장이 채 마감되기도 전에 드라마틱하게 종료된다. 해당일 게임스탑의 주가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주식중개업과 사이트들이 게임스탑 주식의 구매를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2013년 설립 후 “금융 접근의 민주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많은 젊은 세대 대중투자자 고객을 확보해온 로빈후드(Robinhood) 주식거래 앱은(Tan, 2021), 이 날 한동안 게임스탑 종목의 구매 버튼을 비활성화해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스탑 주식구매 속도에 제동이 걸리고, 주가가격은 하루 만에 \$190대로 폭락하게 된다. 뒤이어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주식 구매를 막은 것이 로빈후드 지분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시타델 헛지펀드가 게임스탑 공매도에 참여한 델핀 캐피탈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음모론’이 WSB에 전해지면서, WSB 멤버를 비롯한 게임스탑 개미투자자들은 로빈후드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미 언론과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이러한 조치가 “금융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Henwood, 2021). 1월 29

일 로빈후드와 여타 주식중개 사이트들의 구매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게임스탑 주시가격은 일시적으로 반등하게 되지만 이전의 열기를 되찾지는 못했고, 2월 초 주시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게임스탑을 둘러싼 과열상황은 일단 마무리 된다.⁶⁾

CNBC의 보도에 따르면 1월 말의 공방전이 벌어진 일주일 동안 멜빈 캐피탈을 포함한 공매도 세력은 약 2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⁷⁾ 이 과정에서 초기에 게임스탑 관련 리포트를 통해 공매도를 지지했던 시트론 리서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관련 보고서를 더 이상 발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WSB의 성과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헷지펀드를 비롯한 금융계 큰손들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통쾌한 복수담처럼 보인다. 이 시기 WSB에는 게임스탑 사태로 자신의 학자금대출을 모두 갚았다거나, 밀린 병원비를 내고 모기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다는 증언담이 속속 올라오고, 이들은 연대와 응원의 댓글과 함께 상당한 ‘좋아요(upvote)’를 받고는 했다. 앞서 언급했지만 SNS 세상과 언론에서는 게임스탑 사태를 “오쿠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혹은 더 나아가 “프랑스 혁명”이나 “계급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였다(Chavagneux, 2021). 비록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게임스탑 사태가 이들의 말처럼 1% 대 99%의 싸움이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⁸⁾ 우리는 대중투자자들이 단결된 전략으로 거대 헷지펀드들을 당황시킨 사태에 일종의 대리만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게임스탑 사태가 가진 의미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가 질문을 던져보자. 게임스탑 사태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헷지펀드들의 공매도라는 특정 투자형태에 대한 반격이 전세계 대중투자자들의 동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전세계화된 금융시장의 속성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6) 일부 게임스탑 투자자들은 이후에도 숏 스쿼드가 올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Buy and Hold GME” 운동을 벌여갔다. 이들은 1월의 사태 이후로 WSB에서 분리되어, r/wallstreetbetsnew, r/Superstonk, r/GME 등으로 분화되어 게임스탑 추가 변동 상황을 서로 공유했으며, 한국에서도 ‘DC 해외주식투자 갤러리’에서 분리된 게임스탑 투자자들이 ‘DC 게임스탑 미니갤러리’에 모여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나간 바 있다. 2021년 전반에 걸쳐 진행된 게임스탑 사태에 대해 WSB 멤버의 관점에서 자세히 정리한 타임라인으로는, <https://gmetimeline.com/> 참고.

7) GameStop short sellers are still not surrendering despite nearly \$20 billion in losses this month. *CNBC* [On-line], 2021.1.29, Available: <https://www.cnbc.com/2021/01/29/gamestop-short-sellers-are-still-not-surrendering-despite-nearly-20-billion-in-losses-this-year.html>

8) 예를 들어, 핫소(Hasso, 2021)는 2021년 1월 동안의 게임스탑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이 오르자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기도 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다수의 헷지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사태 와중에 게임스탑 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게임스탑의 주가 상승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되었다. BlackRock may have raked in \$2.4 billion on Gamestop's retail-driven stock frenzy, *Reuters* [On-line], 2021.1.28, Available: <https://www.reuters.com/article/us-blackrock-investment-gamestop-idUSKBN29W22T>

3. 금융투자가 SNS와 만날 때: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가치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등의 금융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주류 경제학 논의들은 공식적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근본적/내재적 가치(fundamental/intrinsic value)를 반영/재현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주식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재무상태 등과 같은 펀더멘탈에 따라 결정되고, 비록 주식의 시장가격이 이러한 내재적 가치와 일시적으로 괴리된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효율적 시장에서는) 일련의 조정과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 상품의 내재적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다(Bjerg 2014; Orléan 2014). 즉, 금융상품의 가치는 금융시장 ‘외부’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금융시장은 효율적 정보처리를 통한 거래의 결과 이러한 근본적/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가격과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공매도는 내재적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된 기업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개입해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금융상품 가격을 내재적 가치에 수렴키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투자 행위라 볼 수 있다(이관휘 2019).

하지만 공매도가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작동한다는 앞서 언급한 문제제기에서 보듯이, 현실에서 금융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오히려 금융시장의 행위자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듯이, 금융상품의 가격은 그 내재적 가치에 의해 금융시장 외부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내부’의 동학과 행위자들의 실천이 가진 ‘수행적(performative)’ 효과로 인해 일정 부분 자기참조적으로 생산된다. 쉽게 말하자면, 금융상품의 가격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믿고’, ‘컨피던스를 가질 때’ 상승하고, 그 반대로 예상하고 믿고 행동할 때 떨어지는 자기참조성을 가지는 것이다. 금융상품 가격의 이러한 기묘한 특성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적한 것은 케인즈였다. 주식투자를 미인대회 입상자를 맞추는 게임에 비유한 유명한 예시에서,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문투자는 100매의 사진 가운데서 가장 얼굴이 아름다운 6인을 선택하여 그 선택이 투표자 전체의 평균적인 선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품이 주어지는 신문투표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각 투표자는 그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표자들의 취향에 가장 잘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

얼굴을 선택해야 하고, 참가자 모두가 같은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조금 더 나아가자면 평균적인 의견이 가장 아름답다고 진정하게 생각하는 얼굴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평균의 의견이 어떠한 것이라라고 예측하는 평균적 의견을 예측하는 3차 단계에 도달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4차, 5차 및 그 이상 고차의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나는 믿는다(Keynes, 1936/2007, 183; 번역은 일부 수정).

즉, 투자자의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상품의 내재적 가치도,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은 상품인가도 아니고, 다른 시장 참가자들 혹은 ‘시장’이라고 상상된 집합적 투자자들이 보기에 좋은 상품인가의 여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들 혹은 더 나아가 시장 자체가 무엇을 믿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투기/추측(speculation)’에 기반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종종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 자체보다는 시장에 존재하는 집합적 믿음과 컨피던스—어떤 주식이 가치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혹은 미래의 경기 전망이 좋다고 ‘여겨지는지’—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이유이다.

여기에서 케인즈는 문제를 여전히 가치의 투기/추측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비어(Bjerg, 2014, 26)가 지적하듯이, 이 문제를 “단순히 인식론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를레앙(Orléan, 2014)은 케인즈가 이야기한 n차의 투기 과정에서 투자자들 간의 의견 수렴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투기 자체를 시장의 “집합적 믿음” 혹은 “집합적 믿음에 대한 집합적 믿음(에 대한 n차의 집합적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투기 행위는 이를 통해 시장 내부에서 금융상품의 가치에 대한 공통의 집합적 믿음을 형성해나가는 일종의 ‘수행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상품의 가치가 금융시장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되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가치/가격 자체가 외부에 절대적 준거점이 없는 ‘비정초적(non-foundational)’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가치화(valuation)” 실천을 통해서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Muniesa, 2014; Konings 2018; 이승철, 2022).⁹⁾ 다시 말해, 금융시장에서 행위자들의 투자는 단순히 금융상품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사변적 추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구성해내는 크고 작은 수행적 효과를 창출하며, 특히

9) 암호화폐의 자기참조적 가치화 과정과 그 문화적 결과에 대해서는, Lee(2022) 참고.

강력한 수행적 효과를 동반하는 투기행위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작동하게 된다.¹⁰⁾

게임스탑 사태는 바로 이러한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구조가 일반투자자들에 의해 간파되고, 쟁점으로 구성되며, 동시에 이들이 자신들의 투기가 가진 수행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우선 이 사태를 설명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인 기존의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분노가 지금까지 헷지펀드들이 이러한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더 나아가 자기실현적 구조를 일방적으로 착취해왔다는 사실을 향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학자 코닝스(Konings, 2018a)는 금융시장의 비정초적·자기참조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투기 행위가 생산하는 수행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행위자들의 실천을 “레버리지(leverage)” 전략이라 명명한다. 그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각 투자자들의 행위성(agency)과 그것이 발휘하는 수행성은 이러한 레버리지 전략의 활용여부에 따라 극도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며, 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진 행위자들은 보다 더 강력한 레버리지 전략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수행적 효과를 생산할 수 있다.¹¹⁾ 그렇다면 WSB 멤버들의 목표는 기존에 공매도 세력이 일방적으로 활용하던 레버리지 전략을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매도 투자기관들에 맞서 대중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제한하거나 동등한 조건에서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¹²⁾ 게임스탑 사태는 오히려 바로 이러한 자기참조적 구조를 대중투자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WSB 멤버들이 자신의 구매내역을 SNS 상에 인증하고, 게임스탑 주식을 구매하라는 포스팅을 올리고,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광고판을 집단 구매해서 게임스탑에 대해 알리는 행위들은, 표면적으로는 즐거운 놀이나 유희 혹은 전형적인 인터넷 하위문화의 실천처럼 보이

10) 물론 금융시장에서의 투자행위가 수행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모든 투자 행위가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수행성이 성공적으로 발휘되기 위한 특정한 조건들에 대한 분석이며, 금융시장의 경우 수행성이 극대화되는 비정초적 구조를 가진 동시에 행위자들이 생산하는 수행적 효과가 극도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시장이라는 특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의 수행적 실천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조건을 둘러싼 중요한 논점들에 대해서는, 수행성을 강조하는 행위자-연결망-이론의 시장분석이 수행성의 실패라는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디스 버틀러(Butler 2010)의 비판과 이에 대한 미셸 칼롱(Callon 2010)의 반론을 참고할 것.

11) 코닝스의 레버리지 개념은 대출 등을 활용하여 투자금액을 늘림으로써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차입투자(leverage) 전략을, 금융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행위전략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개념을 통해 코닝스는 미셸 칼롱 식의 행위자-연결망-이론의 금융시장 이해를 넘어서, 금융시장에서의 행위자성의 불균등한 배분을 적극적으로 개념화하려 시도한다(Konings, 2018b).

12) 한국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의 논리와 실천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자연합회>(https://cafe.naver.com/hantuyon)의 활동을 참고할 것. 이 단체는 WSB의 활동에 영감을 얻어 자신들의 활동을 kstreetbets로 이름붙이고 ‘K-스탑’이라는 이름의 공매도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만,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가치화 구조 속에서 본인들의 투자가 가진 수행적 효과를 집합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성찰적인 레버리지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스탑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추가구매의 중요성을 강조한 WSB의 인기 포스트 중 하나는, WSB의 ‘게임스탑 주식 구매 및 유지’ 운동의 배후에 놓인 논리를 설명 하면서 앞서 살펴본 ‘케인즈의 미인대회’에 관한 위키피디아 항목을 소개한다.¹³⁾ 즉, 이들은 본인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구매하고 이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미디어에 최대한으로 노출시킨다면, 자기참조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투자가 가진 수행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게임스탑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바람대로 주식 가격은 상승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운동의 시작점이자 사태발발 이후 WSB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지도자’로 추앙된 키스 질이 게임스탑 사태 이전에도 SNS를 통해 게임스탑 주식 구매를 독려하던 열성 유투버이자 WSB의 꾸준글러였다는 사실은, 이 사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로 기능한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상호연결된 대중투자자집단의 등장은, 이러한 연결성에 기반해 자신들의 투기의 수행적 효과를 확장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레버리지 실천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구조는, 거대투자기관들의 필요에 따라 적극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항상 부인(disavowal)되어 왔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합리적 투자와 비합리적 투기의 구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금융시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합리적 선택과는 거리가 먼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구조에 기반해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그 헨우드(Doug Henwood)가 강조하듯이, 게임스탑 사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부인해 왔던 사실—금융시장은 상품의 내재적 가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불안정한 도박판과 같다는 것—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따름이다(Henwood, 2021).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게임스탑 사태의 근본적 새로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Feher 2021). 제사에 인용한 실러는 자기실현적 예언에 기반한 금융시장의 구조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이 무지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의 대중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고 그에 따라 이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공통의 실천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해진 오늘날의 금융시장에서, 대중투자자들은 금융시장이 자신들

13) Repost from u/OhioDiver: Alleged Hedge Fund Insider, Available: https://www.reddit.com/r/wallstreetbets/comments/d7u6d/repost_from_uohiodiver_alleged_hedge_fund_insider/

의 집합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게임스탑 사태가 보여주는 오늘날 금융시장의 새로운 속성은, 바로 이렇게 상호연결된 집합적 대중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실천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대중을 레버리지하기: 투자자 포퓰리즘의 등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게임스탑 사태는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가치화 구조를 집단적으로 간파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의 등장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의 언어와 실천에서 뚜렷하게 발견되는 “포퓰리즘적 양식(populist style)”이다(Canovan 1999; Moffitt 2016). 자기참조적 금융시장에서 자신의 투기가 생산하는 수행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대중투자자들은 스스로 대중이 되고 또한 대중을 동원(mobilization)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들의 활동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문법을 따르게 된다. 게임스탑 사태에서 WSB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거대 엘리트 금융세력과 맞서는 덜떨어진 일반투자자들(유인원, 저능아, 자폐아 등)로 정체화하면서, 기존 제도와 주류 미디어에 맞서 SNS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정보순환과 주식구매라는 직접 행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였다. 금융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금융영역에서 대중의 동원이 중요시되는 현상이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지만(Stäheli 2013),¹⁴⁾ 투자행위 자체가 포퓰리즘적 양식들과 결합된 것은 게임스탑 사태의 새로운 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문화적 양식으로서의 포퓰리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Moffitt, 2016), 게임스탑 사태에서 두드러졌던 WSB 구성원들의 활동과 구호,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밈(meme)들을 분석하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대중투자문화와 포퓰리즘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포퓰리즘은 “모호함을 그 본질로 한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정의하기 까다로운 개념이지만(Taggart, 2000/2017, 16), 이 글은 다양한 포퓰리즘에 대한 접근 중 그것을 특정한 “정치문화적 양식이자 수행”으로 파악한 연구들에 주목한다(김현준 · 서정민 2017; Mouffit,

14) 특히 1970-80년대 미국 기업들에서 진행된 ‘주주가치 혁명(shareholder revolution)’은 기존 대기업의 관리자 집단을 부패하고 게으른 집단으로 공격하고, 이들의 횡포에 맞선 ‘주식소유자 대중’의 권리를 내세워 기업구조를 금융중심·주주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을 동반하였다. 이러한 주주가치 담론의 포퓰리즘적 성격에 대해서는 Ho(2009, 3장), Ghilhot(2006/2013) 참고

2016, 2020; Ostiguy, 2017; Mazzarella, 2019). 이들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뚜렷한 지향과 원칙을 가진 일관된 이념이나 전략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세계관과 인식론, 정체성에 기반하는 동시에 이들을 생산해내는 문화적 실천이자 수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듯 포퓰리즘을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구체적인 포퓰리즘적 실천 형태들에 주목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정치 영역 외부로도 포퓰리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들에 따르면, 포퓰리즘적 문화양식의 기본적 특성은, 엘리트 대 대중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기반한 세계관, 외부의 위협에 포위되어 있다는 정세관, 기존 제도와 담론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에 기반한 인식론, 매개를 거부하고 집합적 직접행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실천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Canovan 1999; Mouffit 2016; Mazzarella, 2019). 흥미롭게도 이러한 포퓰리즘의 문화 양식은 대중을 동원하는 WSB의 레버리지 담론과 실천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1) 금융엘리트 대 덜떨어진 우리들

대중동원이 필수적이던 게임스탑 사태에서, WSB를 중심으로 한 대중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을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금융엘리트’들에 맞서는 덜떨어진 피해자 ‘우리’라는 대립구도에 적극적으로 기대면서 이를 재생산하였다. 게임스탑 사태 기간 동안 WSB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아빠!(This is for you, daddy!)”라는 제목의 포스트는 이러한 반(反)-엘리트 정서와 대립구도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인용자] 부동산시장 붕괴가 우리 가족을 박살낸 걸 기억해. 탄탄했던 아버지 회사는 거의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렸어. 아버지는 집을 잃었고, 삼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식탁에서 폰돈 세는 걸 형이 도와줬던 기억이 나. 그게 아버지가 가진 모든 돈이었어.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월가 헷지펀드 매니저들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시위자들을 내려다보며 샴페인을 마시는 것을 봤어. 나는 그걸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아버지는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술에 빠졌어.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잃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이건 내가 가진 전 재산이야. 그들에게 주기보다는 모두 잃고 마는 것이 더 나아. 돈을 잃는 건 아프지 않아. 난 그걸 전혀 소중한게 생각하지 않거든. 차라리 복수를 위해 모두 불태워버릴거야. 아빠,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¹⁵⁾

이 포스트는 WSB에서 단기간 동안 7만 이상의 ‘좋아요’와 33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세계 인터넷 공간에 공유되고 주류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WSB의 정서를 대표하는 텍스트로 자리잡게 되었다. WSB의 주된 구성원인 밀레니얼 세대 남성주체의 관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아버지와 형, 삼촌이라는 남성주체들의 고통으로 개인화·구체화하는 이 포스트는, 분노의 대상을 금융시스템 자체보다는 월가 헷지펀드 매니저로 대표되는 금융 엘리트집단으로 특정하고 게임스탑 투자 행위를 금융위기로 고통받은 대중들의 엘리트들에 대한 복수행위와 연결짓는다.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서 대중투자자들의 게임스탑 주식구매 행위는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구조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기적 실천을 넘어서, 자신들의 삶의 고통을 야기한 금융엘리트 집단에 대한 복수의 실천이자 저항행위로 의미화될 수 있다(Mendoza-Dento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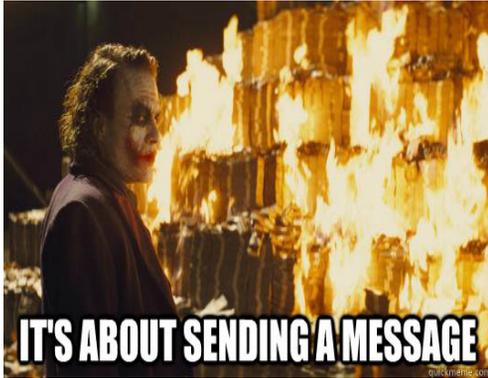
비도덕적인 금융엘리트와 고통받는 우리-대중의 이러한 이분법적 대비는, “이건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It’s not about money. It’s about sending a message!)”라는 WSB의 인기 밈에서도 발견된다(<그림 2> 참고). 블록버스터 영화 <다크나이트>(2008)의 등장인물 조커의 대사를 차용한 이 구호는, 게임스탑 투자행위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에 대한 복수 행위로 의미화하는 동시에, WSB 대중투자자들이 영화 속에서 고통스런 생활을 영위하다 정신착란을 일으켜 테러리스트로 변모하는 조커와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들은 금융엘리트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들에 의해 고통받는 대중투자자들로서 자신들을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비하적 속어와 욕설, 반-정치적 올바름(anti-PC)을 지향하는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학자 마가렛 캐노번이 포퓰리즘의 “타블로이드 양식”이라 부른 문화적 양식을 차용한다(Canovan, 1999, 5). WSB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덜떨어진 놈들(degenerate)”이라 칭하면서, 글에서 서로를 호명할 때에는 “자폐 저능아 동료들(fellow autistic retards)”이라 지칭한다.¹⁶⁾ 이러한 과장된 자기비하적 용어의 사용은, 한편으로는 기관투자자들의 “똑똑한 돈(smart money)”에 대비해 개인 소액투자자들의 돈을 “멍청한 돈(dumb money)”이라 불러온 월스트리트의 오랜 관행을 전유해 비튼 것이기도 하지만(Henwood 1999: 53), 동시에 의도

15) 원문은 다음을 참고할 것. This is for you daddy!, Available: https://www.reddit.com/r/wallstreetbets/comments/17sj9/this_is_for_you_dad/ 이 포스트와 댓글에서 드러나는 밀레니얼 세대 남성주체의 시대인식에 대한 분석으로는 Mendoza-Denton(2021) 참고.

16) Basic guide to Wallstreetbets culture for Newcomers. Available: https://www.reddit.com/r/wallstreetbets/comments/17fr21/basic_guide_to_wallstreetbets_culture_for/

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잘 교육받은 코스모폴리탄으로 상상되는 금융엘리트들과의 구별을 분명히하기 위한 수행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Moffitt, 2016, 44; Nagle 2022/2017도 참고).¹⁷⁾

〈그림 2〉 “It’s about sending a message”



출처: r/wallstreetbets

〈그림 3〉 “Hold the line”



출처: r/wallstreetbets

2) 전쟁터로서의 금융시장과 지도자 애착

WSB를 중심으로 한 게임스탑 대중투자자들의 문화적 양식에서 두 번째 눈여겨보아야 할 특징은, 이들이 금융시장을 하나의 전쟁터로 인식하고,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다는 압박한 위협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털떨어진 대중투자자 본인들은 금융기관, 주류 미디어, 부패한 정치인들에 포위되고 항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앞서 <다크 나이트>와 <혹성 탈출>에서 차용된 밈과 구호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은 테러리스트 혹은 반란자로 본인들을 정체화하며, 따라서 게임스탑을 둘러싼 금융시장은 거래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세력들이 격돌하는 전쟁터가 된다. 게임스탑 주식의 구매와 유지를 강조하

17) 게임스탑 사태 기간 동안 WSB에서 일종의 공식구호처럼 사용되던 “유인원! 뭉쳐! 강하다!(Apes! Together! Strong!)” 역시, 이러한 ‘엘리트들에 맞선 대중의 집합적 반란’이라는 게임스탑 대중투자자들의 세계관과 자기-이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치 몇 년 전 한국의 암호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쳐졌던 “가즈아” 구호처럼 게임스탑 주식 구매를 독려하는 포스팅의 마지막에 의례처럼 덧붙여지는 이 구호는, 유인원이 인간의 지배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의 <혹성탈출(Planet of the Apes)> 영화 시리즈에서 차용한 것으로, 금융엘리트들을 인간에, 대중투자자인 자신들은 유인원으로 비유하는 동시에 문법적으로 조악한 구호를 통해 자기비하적 감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구호는 자신들의 투자행위를 억압적 엘리트에 의해 고통받던 대중의 ‘집합적’ 반란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면서, WSB 멤버들은 “줄을 꼭 잡아/버터!(Hold the Line!)”라는 구호를 사용하는데, 이 구호는 전쟁 밈과 결합하여 “전선을 지키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그림 3> 참고). 이 때 투자행위는 전쟁터에서 전선을 지키는 행위로, 대중투자자들이 집합적으로 단결하여 외부의 위협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을 이해관계의 계산에 따른 거래를 보장하는 제도적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세력의 힘들이 직접적으로 경합하는 전쟁터로 파악하는 시선은, 한편으로는 금융상품의 가격이 레버리지 전략을 활용한 세력들에 의해 자기참조적으로 결정되는 금융시장의 근본구조를 직관적으로 간파한 결과인 동시에(Orléan 2014), 다른 한편으로는 항시적인 위기와 압박한 위협을 강조하는 포퓰리즘적 세계관의 핵심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핏에 따르면, 이러한 즉각적 위협에 포위되었다는 인식은, 기존의 제도와 정책적 해결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위협이 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행동과 공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적 시도를 강화하고 재생산한다(Moffitt, 2016, 45). 이러한 논리에 따라 앞서 언급한 대중투자자들의 금융엘리트들에 대한 분노와 대립구도는 금융시스템과 금융자본주의의 전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금융시장이라는 ‘전장’에 뛰어들어 투자라는 ‘직접행동’을 통해 위협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귀결된다.

동시에 흥미로운 것은, 금융시장을 전쟁터로 이해하는 이러한 상상의 연장선상에서 게임스탑 대중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상적 지도자와의 감정적 유대와 이에 기반한 집합적 정체성의 강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게임스탑 사태 이전에도 게임스탑 주식구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던 키스 질이나 게임스탑의 새로운 이사로 영입되어 e-커머스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라이언 코헨은, WSB 멤버들 사이에서 “메시아”, “캡틴 아메리카”, “대장” 등으로 불리며 전폭적 지지를 받는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로서 대학 졸업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결국 노동시장의 저임금 구조를 견디지 못해 전업 투자자의 길을 택했다는 키스 질의 개인적인 서사는, 유사한 연령대의 남성 주체들이 주를 이루는 WSB 구성원 전반의 정서 및 생애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¹⁸⁾ 물론 금융시장에서의 대중동원에 대해 논하면서 슈테헬리가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금융시장에서는 “시장가격 자체가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Stäheli, 2006/2015,

18) Keith Gill Drove the GameStop Reddit Mania. *The Wall Street Journal* [On-line], 2021.1.29., Available: <https://www.wsj.com/articles/keith-gill-drove-the-gamestop-reddit-mania-he-talked-to-the-journal-11611931696>

678), 이러한 상상적 지도자에 대한 애착은 궁극적으로는 향후 시장가격의 상승에 대한 확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키스 질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포스트들에 달리는 댓글의 상당수가 “그가 게임스탑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나도 그럴거야(If he holds, I will hold, too)”인 것은, 지도자에 대한 애착의 형성이 투자를 매개로 형성된 이해관계의 일치 및 시장가격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예로 이해될 수 있다.

상상적 지도자와 대중 간의 친밀한 애착을 시장 가격에 대한 확신으로 번역하려는 시도들은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놀이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WSB에서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받는 포스트들의 한 가지 유형은, 키스 질과 라이언 코헨이 올리는 유튜브 영상과 트윗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해 그 안에서 주가 상승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시도들이다. 한 예로 2021년 5월 라이언 코헨이 본인의 할머니 사진과 함께 할머니의 말을 인용한 “Ryan, I love you but I don’t like you”라는 트윗을 올리자, 여전히 숏스퀴즈를 기대하고 있던 일부 게임스탑 투자자들은 곧바로 이 트윗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한 해석은 이 구절이 가수 엘튼 존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 동일한 것으로, 엘튼 존의 별명은 로켓맨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헨이 게임스탑 주가가 곧 로켓처럼 상승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보다 더 인기를 얻은 해석은 이 구절이 스모키 로빈슨이라는 가수의 <You Really Got a Hold on Me>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로, 실제 가사에서 이 구절 뒤에 “Please hold me, squeeze, hold me, hold me”라는 가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트윗은 게임스탑 주식을 팔지않고 유지하면 곧 숏 스퀴즈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도자 코헨으로부터의 메시지라 주장한다.¹⁹⁾ 키스 질이나 라이언 코헨을 대장이나 메시아로 명명하고 이들의 말에서 시장가격의 징후를 읽어내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WSB 멤버들이 놀이처럼 즐기는 인터넷 하위문화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터로 상상된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매개로 상상적 지도자와 이해관계의 동맹 및 친밀성의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전선을 지키고 집합적 투자의 수행성을 극대화하려는 레버리지의 실천이기도 한 것이다.

3) 정보의 수행적 효과와 탈-진실

금융엘리트와 대중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이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WSB 구성원들의 인식은, 금융시장의 비정초성·자기참조성과 맞물려 모

19) Ryan Cohen Twee Solved!, Available: https://www.reddit.com/r/Superstonk/comments/nf0621/ryan_cohen_twee_solved/

든 발화를 그 수행적 효과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특수한 형태의 인식론을 낳는다. 2월 들어 게임스탑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주류 언론들은 “게임스탑 투자 열기가 식었다”라거나 “은(銀)이 WSB의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등등의 뉴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WSB 멤버들은 이러한 주류언론의 보도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표하고 이를 프로파간다로 공격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뉴스가 단순히 사실과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었다(실제로 해당 보도가 나온 시점에 게임스탑 구매 열기는 한풀 꺾인 이후였으며, 또한 은에 대한 투자가 WSB에서 논의되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오히려 이러한 보도들이 프로파간다로 비난받았던 핵심 이유는, 그 진실성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정보의 순환 자체가 대중투자자들로 하여금 게임스탑 주식을 팔게 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수행적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수행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금융가격이 일정 정도 자기참조적으로 결정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발화와 정보는 그 진리값 자체보다는 그것이 생산할 수 있는 수행적 효과의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이다.

해당기간 WSB에서 무려 12만이 넘는 ‘좋아요’를 받은 한 포스트는, 이러한 특수한 인식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밑에서 모든 주류 미디어들은 “공매도 세력이 자신의 공매도를 청산했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이에 대해 작성자는 “좋아. 그런데 왜 굳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라고 되묻는다(<그림 4> 참고). 이 되물음의 형태는 징후적인데, 왜냐하면 이는 해당 정보의 진위나 신뢰가능성을 묻는 것(예컨대,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지?” “누구에게서 그 정보를 얻었지?”)이 아니라, 정보의 전달이 생산하는 통한 수행적 효과를 묻는 질문(“이 정보의 전달을 통해 너희가 노리는 효과는 뭐지?”)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언어학자 오스틴은 특정한 발화에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진술(constative)의 차원과 문장이 묘사하는 사회적 현실 자체를 변형시키는 수행적(performative) 차원이 공존하며, 실제 발화에서 어떠한 차원이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가는 발화의 맥락에 따라 변화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Austin, 1979).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성을 간파하고 금융시장을 일종의 전쟁터로 간주하는 게임스탑 대중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오직 발화의 수행적 효과만이 중요하게 사고된다는 점이다.²⁰⁾ 이러한 인식론 하에서 발화의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르는 사실진술의 차원(예를 들어, 실제로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청산했는지 혹은 실제로 WSB 구성원들이 은에 투자하

20) 암호화폐 시장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Lee(2022) 참고.

기 시작했는지의 여부)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이러한 발화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팔도록 종용하는 수행적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²¹⁾ 또한 역으로 게임스탑 대중투자자들이 각종 밈들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Hold the Line!”과 “Apes! Together! Strong!”을 외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상황판단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떠나 이들의 발화가 금융상품의 자기참조적 가치화에 수행적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Cool, but why would they bother telling us?”



출처: r/wallstreetbets

게임스탑 대중투자자들의 이러한 인식론은 WSB에서 순환되는 모든 정보를 그 수행적 효과에 기반해서만 판단하게 함으로써,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수행적 효과를 낳는 모든 정보들을 헛지펀드 세력의 프로파간다 혹은 주류 금융기관 및 언론들의 속임수로 간주하게 만든다. 이는 헛지펀드나 금융엘리트들이 게임스탑 대중투자자들의 전선을 붕괴시키기 위해 WSB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과 음모론으로 이어지고, 이는 WSB가 게임스탑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r/wallstreetbetsnew, r/Superstonk, r/GME

21) 더 나아가 오히려 사실진술의 차원 자체가 그 발화의 수행적 효과에 기반해 역으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은이 WSB의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주류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WSB 구성원들은 이전에 ‘은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던 포스트들이 이러한 보도를 위한 주류 미디어와 헛지 펀드들의 사전 작업이 아니었나 의심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보도의 진위여부(실제로 은이 WSB의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고려되었는가)는 판별할 수 없으며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와 같은 별도의 게시판으로 계속해서 분화되어간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발화의 진위여 부보다는 그 수행적 효과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들의 인식론은, 아마도 포퓰리즘과 긴밀히 연결된 문화양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서 지식은 권력 투쟁의 한 계기로서만 이해하는 “탈-진실(post-truth)”의 태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Fuller, 2018, McIntyre 2018/2019). 하지만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들의 이러한 탈-진실 인식론이 이들의 무지예의 욕망이나 대중의 맹목성 따위의 결과라기 보다는, 한편으로는 발화의 수행적 효과만이 중요시되는 금융시장의 비정초적·자기참조적 구조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을 엘리트와 대중간의 전쟁터로 바라보는 전반적인 포퓰리즘적 인식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5. 결론

아담 함즈(Harmes, 2001)는 20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대중의 삶에서 노동보다 금융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대중투자문화(mass investment culture)”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대중투자문화의 확산과 “일상생활의 금융화”로 인해 우리는 본인의 삶을 점점 더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조직하는 개인주의적이고 계산적인 주체로의 전환을 요구받게 된다(Martin 2002; Langley 2008). 이러한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지만, 오늘날 대중투자문화의 확산은 단순히 일반 투자자의 수가 증가했거나 우리의 일상에서 금융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다는 사실에 한정되지 않는다(cf. 이승철 2018). 오히려 오늘날 대중투자문화의 특징은, 이 수적으로 늘어난 대중투자자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결되어 실제로 ‘집합적인’ 투자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Harrington 2008; Kim 2017), 이에 기반해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구조와 레버리지 전략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Feher 2021; Lee 2022). 게임스탑 사태는 이러한 ‘성찰적’ 대중의 등장을 예고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이 앞으로 참여한 사회운동과 대중정치운동의 공간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로 이해될 수 있다.

게임스탑 사태에서 드러난 대중투자자들의 논리와 그들의 문화적 실천양식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이 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금융영역의 대중운동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문화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게임스탑 사태에서 발견되는 포퓰리즘적 문화양식이 단순히 밀레니얼 세대 남성집단의 반문화적 하위문화가 금융영역으로 확장된 것을 넘어서(Nagle 2017/2022, Mendoza-Denton, 2021), 금융시장의 비정초적·자기참조적 성격을 활용해 대중의 집합적 투자가 가진 수행성을 극대화하려는 레버리지 전략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견고한 외부 참조점 없이 일정 정도 투자자들의 실천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 가치화 구조에 기반해, 게임스탑 대중투자자들은 금융 엘리트에 대한 분노와 지도자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대중들을 동원하고, 모든 정보를 수행적 효과에 기대어 판단하면서 본인들의 투자행위를 경제적 실천을 넘어선 금융 엘리트에 대한 복수이자 전쟁 혹은 혁명적 실천으로 해석하는 문화적 양식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 글이 ‘투자자 포퓰리즘(investor populism)’의 등장이라는 말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구조와 포퓰리즘적 문화양식 간의 긴밀한 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화와 포퓰리즘의 관계에 주목한 많은 논의들이 제출되어 왔지만, 이들은 주로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심화시킨 삶의 불안정성이 포퓰리즘 운동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Haiven, 2014; Mouffe, 2019), 초국적 금융의 탈장소적 세계화가 고정된 정체성에 집착하는 포퓰리즘적 백래쉬를 낳게 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해왔다(Appadurai et al. 2017). 게임스탑 사태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적 문화양식에 대한 분석은, 금융화와 포퓰리즘의 관계를 일종의 ‘외재적인 것’으로 파악한 기존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구조와 포퓰리즘적 실천이 가진 긴밀한 ‘내재적 관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가치화 구조는 이러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중들의 포퓰리즘적 문화양식을 생산해내며, 더 나아가 금융시장 자체를 포퓰리즘 운동의 최적화된 공간으로 재구성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²²⁾ ‘금융의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대중들의

22) 오늘날 이러한 ‘투자자 포퓰리즘’의 맹아적 형태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금융시장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WSB를 비롯한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들은 자신들의 수행적 힘을 증명할 새로운 투자대상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앞서 언급한 한투연의 ‘K-스탑’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실 금융상품의 자기참조적 가치화를 행위자들이 간파하고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은, 작게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 평판 유지 활동과 코인 투자자들의 코인 홍보 활동에서부터 크게는 팬데믹 시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동학개미운동’과 같은 흐름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중투자자들의 새로운 집합행동들을 금융시장의 자기참조적 구조 및 그와 연계된 대중의 동원과 레버리지라는 문제의식에서 분석하는 것은, 이 운동들이 가진 문화적 특질과 근본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금융시장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오늘날, 금융시장이 어떻게 포퓰리즘의 온상으로 기능하며, 역으로 포퓰리즘 운동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재편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둘이 맺고 있는 내밀한 관계를 추적하는 작업은 문화경제 연구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보도록 하자. 게임스탑 사태는 과연 금융의 프랑스 혁명이자, 1% 금융자본가가 지배하는 구체제에 맞선 유인원 혹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란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사건이 일으킨 먼지와 흥분이 다소 가라앉은 지금, 우리는 사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현실을 좀 더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말하듯, 아마도 게임스탑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게임스탑에 높은 지분을 가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과 게임스탑 사태 와중에 주식을 대량 구매한 후 적절한 타이밍에 팔아넘긴 대형 헷지펀드 매니저들일 것이다. 샤바뇌(Chavagneux, 2021)의 말처럼, 이 싸움은 콜리앗 대 다윈의 싸움이 아니라 “콜리앗 대 콜리앗의 싸움에 다윗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묘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 글이 주목한 게임스탑 사태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대중 투자문화와 투자자 포퓰리즘의 성격은, 얼마 전 우리가 목격한 것이 어찌면 금융계의 프랑스 혁명이었음에도 모른다고 말해준다. 스테판 욘손(Jonsson, 2008)의 주장처럼,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혁명의 직접적인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대중’이라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주체—이후 계급·국민·시민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근대의 정치 및 사회운동의 장을 지배하며 형성 및 해체되어 갈 낯선 주체—가 역사 속으로 투입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라면 말이다.

참고문헌

- 김현준·서정민 (2017). 포퓰리즘 정치개념 고찰: 문화적 접근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4호, 49~74.
- 이관휘 (2019). 《이것이 공매도다》. 파주: 21세기북스.
- 이승철 (2018). 도박자의 인류학을 위한 연구노트. 《문학과 사회》, 제31권 2호, 311~326.
- 이승철 (2022). 사회적인 것을 계산하기: 사회적 가치 지표(SVI) 개발의 하부정치. 《한국문화인

- 류학», 제53권 1호, 153~205.
- Appadurai, A. et al. (2017). 《거대한 후퇴》 (박지영 외 역). 서울: 살림. (원저 출판연도 2017).
- Austin, J. (1979).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t, J., & Aspers, P. (Eds.). (2011). *The worth of goods: Valuation & pricing in the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jerg, O. (2014). *Making money: The philosophy of crisis capitalism*. New York: Verso.
- Butler, J. (2010). Performative agency. *Journal of Cultural Economy*, 3(2), 147~161.
- Callon, M. (2010). Performativity, misfires and politics. *Journal of Cultural Economy*, 3(2), 163~169.
- Canovan, M. (1999).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47(1), 2~16.
- Chavagneux, C. (2021). 게임 끌어들이 ‘꾼’들의 투기게임. (최혜민 역). 《이코노미 인사이트》, 제132호. [On-line], Available: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_xno=5242
- Di Muzio, T. (2021). GameStop capitalism: Wall Street vs. the Reddit rally. The Bichler and Nitzan archive. [On-line], Available: <http://bnarchives/youku.ca/673/>
- Feher, M. (2021). Another speculation is possible: The political lesson of r/wallstreetbets. Progress in Political Economy Blog. [On-line], Available: <https://www.ppesydney.net/another-speculation-is-possible-the-political-lesson-of-r-wallstreetbets/>
- Fuller, S. (2018). *Post-truth: Knowledge as a power game*. New York: Anthem Press.
- Guilhot, L. (2013). 《조지 소로스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까》 (김태수 역). 서울: 마피. (원저 출판연도 2006).
- Haiven, M. (2014). *Cultures of financializ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 Hasso, T. (2021). Who participated in the GameStop frenzy? Evidence from brokerage account. *Finance Research Letters*. [On-line], Available: <https://doi.org/10.1016/j.frl.2021.102140>
- Harmes, A. (2001). Mass investment culture. *New Left Review*, 9, 103~124.
- Harrington, B. (2008). *Pop finance: Investment clubs and the new investor popu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nwood, D. (1999).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 (이주명 역). 서울: 사계절. (원저 출판연도 1998).
- Henwood, D. (January 27, 2021). The GameStop bubble is a lesson in the absurdity and uselessness of the stock market. *Jacobin*. [On-line], Available: <https://www.jacobinmag.com/2021/01>

/gamestop-stock-market-reddit

- Ho, K. (2009). *Liquidated: An ethnography of wall stree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Jonsson, S. (2008). *A brief history of masses: Three revolu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eynes, J. M. (2007).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조순 역). 서울: 비봉. (원저 출판연도 1936).
- Kim, B. (2017). Think rich, feel hurt: The critique of capitalism and the production of affect in the making of financial subjects in South Korea. *Cultural Studies*, 31(5), 611~633.
- Konings, M. (2018a). *Capital and time: For a new critique of neoliberal reas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nings, M. (2018b). The logic of leverage: Reflections on post-foundational political economy. *Finance and Society*, 4(2), 205~213.
- Laclau, E. (2005). *On populist reason*. New York: Verso.
- Langley, P. (2008). *The everyday life of global finance: Saving and borrowing in Anglo-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S. C. (2022). Magical capitalism, gambler subjects: South Korea's bitcoin investment frenzy. *Cultural Studies*, 36(1), 96~119.
- Martin, R. (2002).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Mazzarella, W. (2019). The anthropology of populism: Beyond the liberal settle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8(1), 45~60.
- McIntyre, L. (2019). 《포스트 트루스》 (김재경 역). 서울: 두리반. (원저 출판연도 2018).
- Mendoza-Denton, N. (2021). “Sticking it to the Man”: r/wallstreetbets, generational masculinity, and revenge in narratives of our dystopian capitalist age. *Anthropology Now*, 13(1), 91~99.
- Merton, R. (194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The Antioch Review*, 8(2), 193~210.
- Mouffe, C. (2018). *For a left populism*. New York: Verso.
- Moffitt, B. (2016). *The global rise of populism: Performance, political style, and represent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ffitt, B. (2020). *Populism*. Cambridge: Polity.
- Muniesa, F. (2014). *The provoked economy: Economic reality and the performative turn*. London: Routledge.
- Nagle, A. (2022). 《인싸를 죽여라》 (김내훈 역). 파주: 오월의 봄. (원저 출판연도 2017).
- Orléan, A. (2014). *The empire of value*. Cambridge: The MIT Press.

- Ostiguy, P. (2017). Populism: A socio-cultural approach. In P. Ostiguy, R. Kaltwasser, P. Taggart & P. Ochoa Espejo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73~9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iller, R. (2001). *Irrational exuber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äheli, U. (2013). *Spectacular speculation: Thrills, the economy and popular discours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äheli, U. (2015). 시장의 대중. Schnapp, J., & Tiew, M. (Eds.). 《대중들》 (양진비 역). 서울: 그린비. (원저 출판연도 2006).
- Tan, G. K. S. (2021). Democratizing finance with Robinhood. *Economy and Space*, 53(8), 1862~1878.
- Taggart, P. (2017). 《포퓰리즘》 (백영민 역). 파주: 한울. (원저 출판연도 2000).